



등산과 산록, 해안선 트레킹

리시리섬 (利尻島)

왓카나이(稚内)로부터 오시도마리(鴛泊)까지 배로 약 1시간 40분, 비행기는 삿포로(신치토세)에서 약 50분. 섬 내에는 해안선을 일주 하는 도로가 있으며, 노선버스와 정기관광버스가 있다.



1 북방철쭉 (에조프쯔지) (Therorhodion camtschatum)



2 홀경천 (Rhodiola rosea)

3 암매 (Diapensia lapponica)



리시리산 산정상

리시리산 (利尻山 1,721m)

등산로는 리시리섬(利尻島) 북해안의 오시도마리(鴛泊)와 서해안의 쿠츠카타(杵形)에 있으며, 항구가 있는 오시도마리의 코스에 이용자가 많다. 양코스의 등산 소요시간은 약 10시간. 해상의 독립봉 특유의 전망을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산정상 부근은 산체의 붕괴가 격렬하고, 비탈과 좁은 능선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낙석과 낙상에 주의하여 걸어야 한다. 산정상도 표고 1,719m 북쪽 봉우리까지만 등산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쿠츠카타코스는 산초우산(三眺山)의 상부에 위치한 곳이 있어 등산전문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리시리산을 오를 때는 자연이 훼손되지 않도록 리시리 규칙을 잘 지켜라.



등산로 주변에 피어있는 진달래과 고산식물과 홋카이도 철쭉



리시리등산로에서 바라 본 오시도마리

히메누마습지 (姫沼)

산기슭의 대표적인 경승지이며, 오시도마리(鴛泊)항에서 가깝다. 원시림에 둘러싸인 조용한 분위기로 리시리산(利尻山)도 바라볼 수 있다. 목도가 있어 호반을 일주 할 수 있다. 상림성의 조류가 많이 보이며, 까막딱다구리도 볼 수 있다.

오시도마리 (鴛泊) 폰산

폰산에서는 리시리산(利尻山) 전체를 바라 볼 수 있다. 리시리산등산로 입구의 호쿠로쿠(北麓)야영장에서부터 트레킹코스가 있어, 히메누마습지(姫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도중에 일본의 명수백선(名水百選)으로 선택된 감로수(甘露水)가 있다.

오타드마리 연못

섬의 남동에 위치하고, 세방면이 낮은 벼랑으로 둘러싸여 있다. 호안에는 요시, 스게류가 많은 소포(沼浦)습지가 펼쳐져 히메누마습지와는 대조적이다. 북쪽 호안의 가운비숲의 건너편으로 보이는 리시리산(利尻山)은 히메누마습지(姫沼)에서와는 다른 날카로운 모습이다. 약 2km 서쪽에는 고층습지인 미나미하마(南浜)습지가 있으며, 목도가 설치되어 있다.



누마우라전망대에서 본 리시리산

해안

남단의 센보우시미사키, 서쪽 해안의 쿠츠카타미사키 등에, 바다에 흘러든 용암 등 기암을 볼 수 있고, 수변놀이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리시리산(利尻山)의 전망도 좋다.



센보우시해안에서 바라 본 리시리산

산기슭과 해안선의 경승지

산기슭에 있는 히메누마습지(姫沼)나 오타드마리못, 몇 개의 폰산(폰은 아이누어로 작다는 뜻)은 폭발한 화구의 자취이거나 축화산이다. 리시리산(利尻山)에서 나오는 준형한 골짜기는 산기슭부터 모두 넓은 선상지가 되어있어 산정상부 침식의 격렬함을 말 해주고 있다. 빗물은 땅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강이 적은 것도 이 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용수는 많다. 용수는 연안의 바다 속에도 있어 어장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리시리산정부근의 양봉



코바이케이소우(나리과) 꽃밭